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 연구원 내부 포럼과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담론을 한 방향으로 모아 가는 의견수렴 과정이오니, 연구원의 의견을 토대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모색되기를 기원합니다.

JDI OPINION <제9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업유치 전략

I. 문제 제기

- 지역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내생적(endogenous)¹⁾인 발전전략과 외생적(exogenous)인 수단²⁾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을 추구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을 돕기 위해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비롯하여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단시일 내에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내수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갖춘 수도권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내생적 지역산업발전정책에는 한계가 있음.³⁾
- 따라서 제주와 같이 수도권에 비해 입지여건이 불리한 지역은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과 병행하여 대표적인 외생적 발전 수단으로서의 국내외 투자유치 혹은 기업유치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제주지역의 기업 경제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제기반산업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조성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강구해야 함.
- 더욱이, 제주지역 산업전략 차원에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병행한 제조업 10% 확대를 위해서나 한·미 FTA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생적 성장수단이 반드시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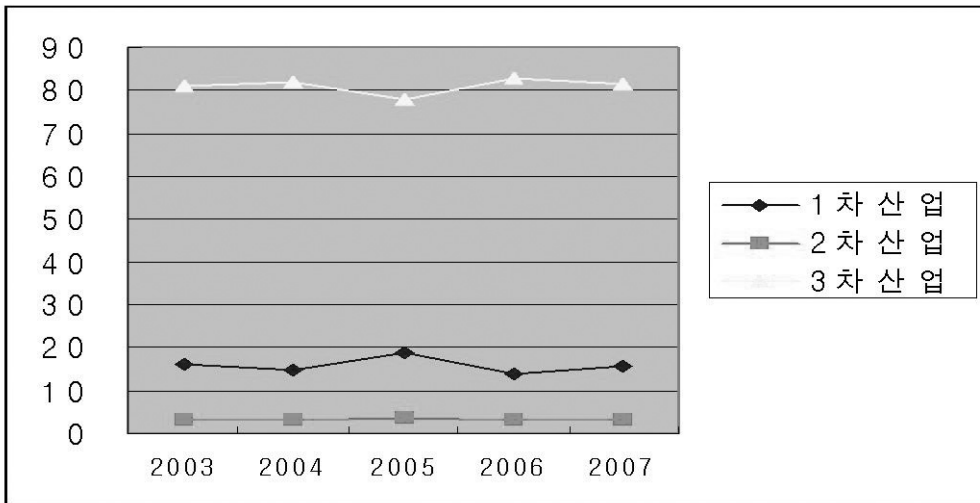
1) 로우머(P. Romer)에 의해 제시된 내생적 경제성장은 경제체제 외부로부터 들어온 힘의 결과물이 아니라 경제체제의 내생적 결과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대표적인 것이 투자유치 또는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다.

3) 이상호·김영남(2008), 지역개발정책의 개편과 지역의 일자리 확충방안, 『지역연구』 제12호



- 특히, 청년인력들이 무직자로 전전하고, 한 번 떠난 제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다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외생적 발전 수단으로서 획기적인 기업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외부기업유치는 낙후된 지역사회에 생기를 불어넣고,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실업률 감소), 고용수준의 유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조세기반의 확충, 지역부의 보존, 지역경제의 안정, 경제적인 자급자족, 지역자산가치의 증식, 빈곤의 감소 또는 퇴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⁴⁾
 - 그러나 이러한 기업유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기업유치활동이 미흡하고, 그 결과 기업유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산업구조 재편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1차산업에 비해 고용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의 GRDP 비중은 2005년 3.1%, 2006년 2.8%, 2007년 2.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제주지역 실질 GRDP 대비 산업구조(단위 %)

- 본 글은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의 한계 및 투자유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경제의 외생적 발전전략의 수단으로서의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실천적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강병주(1997); 권선주(1997)

II.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현황

1. 지역산업정책의 한계

- 그동안의 지역산업정책은 정책 목표의 다원화 및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클러스터 접근의 지역산업정책은 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 중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적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고 있는데, 정책 목표가 매우 복잡적이고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있으나 중간의 세부 목표가 결여되고 있어 최종 목표와 정책수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개발정책의 예를 들면 생활여건 개선(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기반시설 개선(접경지역 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경제여건 개선(신활력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개발촉진지구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일자리 창출(수도권기업이전지원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등이 있음.

〈표 1〉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

구 분	해 당 사 업
생활여건 개선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기반시설 개선	접경지역 지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 지구사업
경제여건 개선	신활력 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특구사업, 개발촉진지구 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수도권기업이전지원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 지금까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대한 평가는 과시성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공급자 관점의 기획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있음. 즉 지역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보다는 가시적이고 홍보가 용이한 센터사업 위주 사업 기획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음.
-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의 구체화와 중간 목표의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역개발정책의 경우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복잡다기한 각종 사업을 중구난방으로 추진하다보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고용증대라는 실용적인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⁵⁾.

2. 기업도시 현황

- 기업도시란 기업이 현재 경쟁력이 있거나 향후 경쟁력 있는 산업중심의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센터, 유통시설 등 산업시설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를 말함.⁶⁾ 즉, 기업도시란 기존 공공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과는 다르게, 기업이 필요한 곳에 산업, 관광 등의 주요 산업과 함께 주택, 의료, 교육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도록 개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음.

- 참여정부는 2004년 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국회 통과되어 2005년 4월 기업도시 유치에 8개 지역이 신청했으며, 동년 7월 8일 제2차 기업도시위원회에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 및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으며, 기업도시 1차 선정에서 보류되었던 충남 태안과 전남의 영암·해남이 기업도시로 추가되었음⁷⁾. 따라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지역은 모두 6곳임.

- 당시 서귀포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제2관광단지 예정지 미악산 일대를 기업도시 후보지로 예비 신청한 바 있으나 민간기업 파트너 선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최종 신청을 하지 못함.

-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도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도시가 되었는지 알고 있어야 함. 그리고 여러 도시의 모델 중에서 제주도에 가장 어울리는 모델이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음.

- 기업도시의 기능별 유형과 관련하여 제조업 부문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 일본 도요타시, 독일의 볼프스부르크시, 우리나라의 울산시, 포항시 등은 기업이 주도가 되어 있는 산업형 기업도시이며, 영화산업으로 유명한 미국 할리우드, 음악의 도시인 미국 내슈



〈그림 2〉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현황

5) 이상호·김영남(2008), 지역개발정책의 개편과 지역의 일자리 확충방안, 『지역연구』 제12호

6) Gideon Colony가 1976년에 썼던 말로 다양한 정주형태 가운데 하나로 기업이라는 개발업자에 의해 기업활동과 경제성을 위해 개발한 커뮤니티라고 정의하였다.

7) 당시, 기업도시 선정은 ①국가균형발전 기여도, ②지속발전 가능성, ③지역특성·여건 부합성, ④사업실현 가능성, ⑤안정적인 지가관리 등 5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음.

빌, 미국 올랜도의 디즈니월드 등은 기업이 개발한 대표적인 문화 레저형 기업도시임. 또한, R&D형 기업도시로는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휴대폰의 핀란드 오울루시를 들 수 있고, 물류형 기업도시는 중국의 선전,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을 들 수 있음.

-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의 경우는 언젠가는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구상하고, 전략적인 건설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혁신도시 건설계획

-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2005년 176개 공공기관을 12개 시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함.
- 제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9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될 예정임. 이전될 공공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토해양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세청고객만족센터, 국세청기술연구소, 국립기상연구소 등임.
- 이들 공공기관은 혁신도시에서 산학연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제주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는 클러스터 성패의 중요한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략산업 육성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III. 국내외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1. 타시도 사례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외투기업 사적조정지원제도 및 경영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외투기업 유치를 주력해왔으며, 이를 통해 유니버설 스튜디오, 에코-디자인시티 등 24건에 85억불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민선4기 목표액 40억불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표 2〉 경기도 연도별 투자유치 현황(MOU 기준)

(단위 : 백만불)

합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2	14,307,3	5	78	3	10,599	35	1,147,3	29	1,280,9	32	880,1	24	8,506

자료 : 경기도 도정백서, 2008

- 강원도는 2007년에 외자유치를 위한 물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올인하여 2007년도에만 국내 120개 기업을 유치시킴.



〈표 3〉 2008 강원도 상반기 고용규모 100인 이상 유치기업

유치기업명	고용인원
일화(춘천)	356명
준영상사(춘천)	310명
명신(춘천)	250명
LS전선(동해)	200명
그린화재 콜센터(원주)	130명
유비트론(횡성)	130명
대원크레인(동해)	100명
진양제약(원주)	100명
솔라맥스(춘천)	100명
이엔에이치(춘천)	100명
파로마 TDS(횡성)	100명

자료 : 강원도 투자유치본부 2008 주요시책

- 경상남도는 기업유치를 위한 공장용지 확보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제조기업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집중해왔음.

〈표 4〉 2007년 경상남도 100억원 이상 투자기업 현황

연 번	업 체 명	위 치	투자액 (1억원)	고 용 (명)	주 생 산 품
	합계		16,439	19,897	
1	(주)지에이산업	사천시 진사암대단지	100	50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2	현진소재(주)	함안군 칠서단지	250	100	선박엔진 부품
3	(주)SYT(세양공정)	함안군 칠서단지	175	70	조선기자재 등
4	E.S리조트클럽	통영시	300	100	숙박업
5	한국화이바	함양군 수동면	2,037	3,500	
6	동우해양조선(주)	남해군 상동면	263	225	선박구성부분부품제조업
7	송죽산업	함양군 서하면	100	10	식품첨가물제조
8	세경조선해양(주)	고성군 동해면	105	45	선박구성부분부품제조업
9	덕산약품공업(주)	양산시 유산동	100	45	석유화학, 고무
10	(주)대한테크	양산시 북정동	200	30	금속단조제품
11	영성산업	양산시 북면	900	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
12	(주)알켄스폴리머	창녕군 계성면	143	32	일반용도로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	(주)세진인텍	김해시 주촌면	137	60	선박구성부분부품제조업
14	(주)케이프	양산시 상북면	850	74	선박구성부분부품제조업
15	(주)태림	양산시 어곡동	100	42	강관제조업
16	르노삼성자동차(주)	함안군 법수면	1,700	30	자동차부품제조업
17	현대중공업	합천군 대방면	2,000	2,000	연수원
18	지리산온천랜드	합천군 가야면	100	100	온천개발
19	동우금송조선	남해군 삼동면	265	300	선박구성부분부품제조업

연 번	업 체 명	위 치	투자액 (1억원)	고 용 (명)	주 생 산 품
20	대송산업개발	하동FEZ	754	1,000	개발사업
21	유니슨	사천시진사단지	200	160	풍력발전설비
22	(주)동훈	창년군 장마면	1,000	350	골프장
23	(주)메이페어리그룹	거제시 하청면	4,000	1,000	리조트
24	(주)성광	고성군마동농공단지	555	1,500	조선기자재
25	산청한방친환경식품	산천군생비랑면	103	70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08

- 군산시는 토탈서비스개념의 유치전략을 통해 현대중공업을 유치하여 직원 8,400명, 협력회사 2,000명 등 1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전북 군산시 비등도동 군산산업단지에 짓는 새 조선소가 완공되면 매년 28척의 선박을 건조해 연간 3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며, 군산시는 연간 55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게 됨.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울산조선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 공장 터를 찾던 현대중공업 본사를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이 60차례나 방문했으며,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항만 터를 용도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를 설득했고, 통상 1년 반 걸리는 공장 인허가 절차를 보름 만에 마무리하였음.
- 경북 구미시의 경우 구미국가 4공단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투자결정을 하면, 7개 기관 21개 민원담당자를 한자리에 모아 공장착공까지의 21종 민원을 일괄처리하고, 자동승인제도와 보완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승인하는 선승인제도의 시행으로 처리기한을 종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응을 얻고 있음.
- 울주군은 2006년 5월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와 관련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장설립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법령과 입지 가능성, 처리기간 단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승인의 타당성을 결정하고, 관련부서 실무자와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검토 및 보완 후 조기 승인하는 등 공장설립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14일→7일 이내)하였음.

2. 제주의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현황

- 그동안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투자유치 속에는 기업유치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유치라는 말보다는 투자유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행정마인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기업유치라는 말은 따로 떼내서 더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 투자유치

-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한해 동안 총 32개 사업 3조8,000억 원의 민자를 유치했으며, 지금까지는 골프장 위주의 단순투자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선 복합휴양리조트, 외국 박물관, 테마파크 등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대, 인센티브 강화, 행정처리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가 이뤄지면서 투자유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을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선언하고, 민간자본 20억불 신규유치와 이미 투자의사를 밝힌 20억불에 대한 투자 실현이라는 ‘Twin-Twenty’ 달성을 목표로 제시함.
- 우선 중국, 동남아 등 화교권 자본을 집중 공략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외국인투자지역 조기지정, 외국인투자 감동서비스 제공, 투자여력 국가의 우량기업 초청 팸투어 실시 등 투자유치인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음. 도는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을 내년에는 8개월 이내로 최대한 단축시켜 나갈 계획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을 마무리해 정상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산파역을 담당할 관광개발 투자자의 PM(project Manager)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PM제도는 1투자기업에 1공무원으로 담당을 지정하는 Man to Man 방식으로 투자상담에서 사업계획 진입,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통합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사업승인, 착공·준공, 사업운영 등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력을 유지 관리하면서 투자자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한 것임
- 이러한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 시책들이 성과를 내려면 우리의 수용태세가 관건인데, 투자자를 따뜻하게 대하고, 그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됨.
- 또 하나 굳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투자유치가 관광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대부분이 투자유치 할 때 대규모 프로젝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관광, 의료, 교육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지만 이제는 여기에 조금만 더 얹어서 제조업 유치도 하나의 아젠다로 생각해야 하며, 전략적으로 기업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나. 기업유치

- 제주의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를 보면 (주)다음과 키멘스전자(주), (주)성도그린 등 수도권 이전 3개 기업이 701명을 고용하고 있음(제주특별자치도 자료, 2008). 기업별로 보면 (주)다음이 520명, 키멘스전자(주) 165명, (주)성도그린 16명 등임. 지난 2004년 제주도로 이전한 (주)다음은 2006년 글로벌미디어센터(기업부설 미디어연구소)를 이전, 180명이 근무해온데 이어 2008년에는 인터넷 검색 품질관리, 유해콘텐츠 차단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자회사인 (주)다음서비스를 설립, 340명을 고용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넥슨(NEXON)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상반기내에 제주 이전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신규사업을 위한 인력 충원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음.
- 첨단과학단지에는 (주)다음 R&D센터를 비롯해 한국XIT, 바이오스펙트럼, 선광LTI 등의 수도권 이전업체에서 시설 부지를 확보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임
- 서울 소재 낙뢰보호 장치 개발 업체인 선광LTI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8,450평방m의 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이전 협의에 나서고 있음.
- 이와 같은 기업유치의 파급효과를 헤아려볼 때, 제주에 적합한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목표와 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추진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3. 기업유치 선행연구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전담기구의 부재와 기업유치를 위한 전문요원 및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투자유치활동과 투자지원활동이 미흡한 실정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공식 마인드와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지역의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음.
-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노사 간 평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지역민들의 참여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야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음(강병주, 1997 : 강태구, 2003).
- 그동안 외부기업 유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외부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조세 감면, 용지매입비 지원, 시설보조금 등 제도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즉,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하드 인프라(물류, 생활 인프라 등), 소프트 인프라(정보, 교육, 제도, 노동, 인력, 언어, 문화, 습관 등)가 갖추어져야 함. 특히 중요한 것은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생활 여건과 사업자 서비스 등 사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외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외부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외부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경제문화 형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다시 말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 혹은 각종 조세 및 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또는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것 이외에도 잠재 투자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서비스와 도민수용태세 등이 결합되어 실질적인 투자유치활동이 전개되어야 함.
- 중소기업의 재무회계 서비스 제공, 산업인력의 훈련 및 재교육 실시, 수출시장 및 판로개척, 연구개발 및 개발보조, 개발권 부여, 부동산관리서비스 제공, 사회간접자본 민영화 등 적극적인 수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이밖에도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조직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효과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지역 내 구매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해 행정당국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주는 지역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오수열, 2004).

IV. 강원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강원도와 시군 사례

- 강원도의 경우 올해 기업유치를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의료, 제약 등 유치전략업종 위주로 공략하고 있음.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유치 전담반(4개반 16명) 운영 및 전국 최고의 기업이전 인센티브를 제공함. 2월말 현재 25개 기업을 유치하여 80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올해 100개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관련 조직으로는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기업유치과, 외자유치과, 관광시설유치과, 미래사업개발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5개 부서를 두고 있음. 올해 중·대규모 이상 기업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기업유치 실적 가점제를 적용하는 등 인사상 혜택 부여

- 강원도 및 시군단위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는데 이어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시군별로 차별화된 기업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이전 기업이 산업단지내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까지 본사 이전보조금을 지원함.
 - 공장이전 투자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공장 이전보조금을 지원함.
 - 이전기업이 군 거주자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함.
- 기초자치단체의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 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과 지방의원, 기업 CEO, 대학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함
 - 기업 및 투자유치의 자문 심의를 담당하고, 기본계획과 변경계획의 적정성 심의와 평가,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이나 지원시책을 심의 결정, 민간투자사업과 행정지원방안의 심의 수행, 투자유치 활동의 전개와 전문분야의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
- 고성군의 경우 기업 및 투자유치팀이 중심이 되어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명부를 확보하여 기업분석, 표적기업 선정,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차별화된 타깃시장으로는 심층수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적합한 식품, 화장품, 비누제조 기업을 추려내서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연결, 기업방문 등의 유치활동을 전개함.

2. 정책적 제언

- 지역경제의 문제는 산업의 문제로서 기업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기업을 유치할 경우 산업구조의 문제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임. 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전략은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새로운 실천적 전략 마련으로 나눌 수 있음.

가. 새로운 기업유치 실천적 전략 필요

- 지금까지 투자유치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들고 수정하는 것에 치중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유치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략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임. 유치활동기간 설정, 기업물색, 기업접촉, 기업유치활동, 기업지원방안 등 과정별로 매뉴얼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업 유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임.



□ 국(局)단위 기업유치 활동 전개

- 현재 투자유치관련 부서는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투자정책과, 일괄처리팀 등)가 전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정 부서의 투자유치 업무 일변도에서 벗어나, 국(局)단위별로 여러 부서가 관련된 기업유치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
- 제주도정에서 지금까지 제주지역에 투자하는 관광관련이든, 일반 기업체든 지간에 모두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에서 처리해왔던 것을 국(局)단위로 확대하여 기업유치 동참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에는 수만 종의, 수만 개의 기업체가 산재하여 있으며, 여러 실국조직은 대부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 지역에 산재한 관련 기업과 접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체에 대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국(局) 단위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임.
- 예를 들어 **친환경농수축산국**의 경우 지역농정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청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할 수 있는 식품업체 등을 접촉하여 기업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됨. 더욱이 양배추나 브로콜리 등 채소가공에 노하우가 풍부한 기업을 유치할 경우 양배추 브로콜리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임.
- **녹색성장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제주가 녹색성장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의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경제국과 청정환경국이 중심이 되어** 관련 기업을 물색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지역에 적합하다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중심이 되어** 관련된 기업군을 파악해 나간다면 예상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음. 이를 위해서 관련부서의 업무와 연계될 수 있는 기업비즈니스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
- 하지만 각 국별로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365일 전력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회 정도 기업유치 집중기간을 설정하여 전국 기업체 방문 등 실질적인 현장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차별화된 표적 기업 선정

- 원료 공급면이나 사회 여건면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충분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차별화된 표적 기업을 선정하고, 관련 실국이 이를 전담해 유치활동을 전개할 경우 성과가 높을 것임.
- **제주의 바람과 물, 용암해수 등의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

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유치된 다음커뮤니케이션, 반도체 기업인 EMLS, 게임업체 넥슨 등을 주축으로 제주가 IT 기업 특화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 IT기업군을 표적시장으로도 삼을 필요가 있음
- 또한 제주에 9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되는데, 이들 이전 기관과 연계된 기업을 분류하고, 제주지역에 적합한 표적 기업 리스트 작성과 전략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함.
- 민간참여『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기업유치 세일즈팀 구성
 -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맨화 시책이 필요함. 민간인이 포함된 투자 세일즈팀을 구성하여 기업유치 활동을 독려하고 민간인이 기업유치 시, 투자비에 비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제공함.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투자 또는 기업 유치 대리자(Agent) 육성 및 투자액이나 사업완료 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안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금을 설정하여 최종 사업이 완료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함.
- 『기업유치포럼』 창설 및 시책 발굴
 - 기업유치의 관련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기업유치 포럼’을 창설하여 월 단위 정기적으로 개최
 - 기업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다듬을 필요가 있음. 신경제혁명 아이디어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로 기업유치만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책을 만들고, 이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여 시행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많은 성과가 있을 것임.
- 정확한 기업유치 정보수집 체계 구축
 - 건실한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이전대상 기업의 기초정보를 사전에 수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함.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에 대한 홍보나 투자설명회 형태를 벗어나 특정사업별로 표적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기업 방문상담 및 기업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내이전 기업 CEO, 투자유치자문역, M&A전문회사 등과 기업유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이를 위해 투자 기업유치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KOTRA, 한국무역협회, JDC, 지식산업진흥원, 하이테크진흥원, 상공회의소 등).



□ 기업유치 예산 확대

- 투자가의 신뢰감 확보를 위해 매년 투자유치 예산을 크게 늘려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기업접촉이 가능해야 함. 반짝하는 전시성 시책이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는 당국의 의지를 나타내 보이려면 중장기 계획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함.

□ 기업유치 전략적 마스터플랜 수립

- 기업유치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기업 유치 전략의 개념적 틀 마련을 비롯하여, 기업 유치를 위한 비전, 목표, 유치전략 등 계획 수립, 그리고 전략적 계획의 실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함. 기업유치를 위해선 기업 이외의 지역의 모든 구성체들의 합의와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며,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계획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함.
- 실행 프로그램에는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발송을 통한 유치 설득을 해야 하고, 인센티브 설명을 통해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기업인의 마음을 흔들어놓아야 함. 그리고 인맥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접촉의 기회를 넓혀 나가야 함.

나. 기업 환경 인프라 구축에 매진

□ 피부에 와 닿는 기업사랑 문화 확산

- 기업사랑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기업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창원시의 경우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기업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7개 분야 81개 세부 실천사업을 선정하여 기업유치 성과를 거둠. 2004년 제1회 기업사랑 시민축제를 시작으로 기업명예의 전당, 기업사랑 도로건설, 기업의 날 제정, 근로자 복지 5개년 계획 추진 등 기업인이 존경받는 다양한 사업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실천해옴. 살기 좋은 제주, 잘사는 제주미래의 파트너는 기업인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유치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전담공무원제 운영

- 유치기업의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운용함. 기업유치가 결정되어 공장이 준공된 후에도 종전과 변함없는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방문, 기업애로사항 수렴 및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장기적인 산업인력수급체계 구축도 필요함. 이전 기업의 성장을 전담하는 전담공무원제를 운영함.

□ 인력공급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인력문제 프로그램을 마련함.

참·고·자·료

- 강기춘(2008), 제주경제의 성장 경로와 신성장 동력의 모색
- 강법식·김덕모(2006), 기업관계자가 본 광주 전남의 기업유치와 투자환경, 『국토연구』 제49권 pp39~54
- 김항석(2005),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 박홍운(2006), 충북지역 기업도시 유치전략과 과제
- 배군득 외 3인(2006), 충청북도 경제특별도를 향한 기업유치 전략
- 이상호·김영남(2008), 지역개발정책의 개편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방안, 계간 『지역경제』 통권 제 12호 산업연구원
- 이상주(2000), 지방세 감면의 효과 분석: 지방공단에 대한 기업유치 정책을 중심으로
- 이우배·김영규(2001)지방의 외국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장재홍(2008),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 계간 『지역경제』 통권 제14호, 산업연구원
- 제주발전연구원(2008), 제주지역의 투자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제주발전연구원(2009), 제주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08), 통계자료